

동산인이여, 공동체의식을 갖자



박인수교장선생님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거의 삶보다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학이 가져다 준 편리한 생활도 그 병리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은 소중한 것들을 잃어가며 생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산 고등학생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의식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동산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밝고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사회는 옛날부터 우리라는 말을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교 62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동산인들에게 점점 우리라는 공동체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염려가 됩니다. 자신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든 학생이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을 아무런 생각 없이 파손하거나 음식물 봉지나 휴지를 함부로 버리는 행동 등은 동산인의 긍지와 자존심을 버리는 이기적이고,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는 부끄러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경

우에 따라서 무의식 적으로 동산을 비하하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학생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매우 마음이 아팠던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동산은 오랜 역사를 간직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에게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동산의 미래를 위해서도 동산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칸트는 설립 목적이 전전한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은 그 단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 즉 조직 구성원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산의 설립 과정이나 목적이 얼마나 훌륭한 것이냐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동산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동산인 모두는 나보다 남을 그리고 동산을 조금 더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동체 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산인으로서 항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소속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저도 동산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더 공고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보람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의 새 학교 문화 창조도 학교장은 물론 교직원, 학생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지금까지의 좋은 문화와 전통을 살리고 또한 잘못된 관행이나 폐습은 과감히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마음이 합쳐 이루어진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할 때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교 62주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 생활을 위해 동산이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혜를 모아 동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시다.